

강진군, 무더위 속 함께 공부하는 '딸기사랑방 컨설팅'개설

딸기 재배 초보 농가 15명 대상 전문가 교육 "앞으로도 작물별 맞춤형 밀착 교육에 힘쓸 것"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6일 딸기 재배 초보 농가 15명을 대상으로 '딸기 사랑방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최영준 원예연구팀장이 강사로 진행했으며, 딸기재배 실

은 작물이다. 최근 자동 양액 재배 기술이 보급되면서 경험 많은 농장에서는 수확량이 늘고 재배가 쉬워졌지만 장비 관리와 기초 지식이 부족한 초보 농가의 경우 막대한 작물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농업인들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졌다. 컨설팅에 참석한 오석진(22세)씨는 "폭염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시간대에 좋은 환경의 교육장에서 딸기 전문가의 상세한 교육을 듣고 다양한 사례와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농업기술센터 김춘기 소장은 "딸기 재배 농가들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할 만큼 앞으로도 작물별 맞춤형 밀착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딸기 사랑방 컨설팅'은 참석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달 30일 2차 교육을 진행한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의신면 남망산 등 21개소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한글 2자리·숫자 8자리 구성

진도군이 남망산 웰빙등산로 등 주요 등산로 21개소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는 등산로·도서지역 등 사고취약지역에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등산객이나 자전거 이용자 등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장소를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표지판이다. 전국을 가로, 세로 10m씩 격자형으로 구획을 나누고 구획마다 한글 2자리와 숫자 8자리로 구성된 고유



번호를 부여한다. 특히 집중호우, 폭설 등 응급상황 발생시 국가지점번호를 알려주면 119 등 신속한 출동으로 인명구조 등에 조기 대응이 가능하다. 이번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

은 의신면 남망산 웰빙등산로 21개소이다. 7월 현재 진도군은 총 184개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를 완료해 등산객과 관광객 등에게 조난·응급상황 대처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매년 예산을 추가 확보해 등산로 등 위험지역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추가·설치할 계획이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번호판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민선7기 해남군 공직자가 "확 달라졌다"

민원만족도 97.1%...민원인 800명 설문조사

해남군은 2021년 상반기 실시한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 97.1% 종합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4회에 걸쳐 공사, 보조금, 인허가, 재·세정 4개 분야 민원인 8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 진행됐다. 조사항목은 친절도, 전문성, 책임성, 적극성, 신속·적정성, 공정성 등 6개 분야와 민원처리 관련 불편·개선 사항 등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공정성 분야 만족도가 98.3%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전문성 98.1%, 친절도 97.6%, 책임성

97.6% 등 전 분야에 걸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급급 항응수수 및 특혜 제공 항목에 대해서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해남군의 청렴문화가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민원처리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된 이유에 대해 담당자의 적극적인 사고(71.3%)와 해남군 행정의 변화(28.7%)라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이같은 결과는 민선 7기 공평·공정·공개의 균정운영 방침을 최우선으로 재임 3년 동안의 급여를 전액 장학사업기금에 기탁하는 등 기관장의 청렴의지와 윈스톱 민원행정서비스 확

대, 현장행정 강화, 적극행정 추진 등 전 공직자가 함께 노력하면서 이뤄낸 성과로 풀이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민선 7기 3년동안 모든 공직자에게 청렴을 생활화하는 공직자세 확립을 강조한 결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는 등 해남군 공직자가 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해남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연속 2등급, 내부청렴도 1등급, 전남도내 1위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 목표로 고강도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완도군·협의회-필리핀 딸락주, 교류 협력 MOU 체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파견·농어업 기술 지원·협력 사업 발굴



완도군과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는 7월 23일, 필리핀 딸락주 정부(주지사 수잔 압)와 농어업 분야 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필리핀 딸락주 정부를 대표한 경제그룹 칸그립의 김혁 회장이 참석했다. 앞으로 두 지역은 농어업, 경제, 문화 예술,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특히 완도군(인구 5만여 명)과 딸락주 정부(인구 250만여 명)는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파견 지원 및 농어업 기술 지원 등 교류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 사업을 발굴·공동 추진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농·어번기가 되면 전북, 해조류 양식어가와 농가에서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근로자 파견 지원 등으로 일손 부족 문제가 해결될 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우호 협력 관계를 다져 공동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완도=이민혁기자

장흥군 "살아본게 장흥이 최고여라~" 수기집 발간 눈길

대상 1편·최우수 3편 포함하여 20편 선정

장흥군은 군민들의 행복하고 진솔한 다양한 삶의 이야기, 귀농·귀촌 정착과정을 담은 수기집 '살아본게 장흥이 최고여라~'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장흥에 살면서 겪는 행복한 이야기로 결혼, 다자녀, 다세대 가정의 행복하고 진솔한 다양한 삶의 이야기, 청년 성공 창업, 일자리, 귀농·귀촌 정착 사례를 주제로 지난 4월 공모전을 진행했다. 장흥군은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대상 1편, 최우수 3

편, 우수 6편, 장려 10편을 선정하여 240쪽 분량의 수기집을 발간하였다. 수기집은 장흥에서의 행복한 삶의 모습과 다양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군민과 향우들에게 장흥사랑과 자긍심을 제공하고, 장흥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바른 이해를 돕는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읍면 민원실과 전입 희망자들에게 배부되어 장흥군 인구 늘리기를 위한 홍보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공모전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기집을 통해 군민들의 행복한 삶의 모습과 다양한 경험이 많은 분들께 공유되고, 장흥에 대한 도시민들의 바른 이해를 돕는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장흥을 알고 싶고, 장흥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